

# GRACE 선교소식

2025년 5월 GMI-GKC 선교사 현황: 62개국 318명 (자체파송 78%)

## 2025년도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이번 주일은 '어버리 주일(Mother's Day)'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는 신앙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야말로, 그 어떤 종교보다도 부모 공경과 효도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가운데 사람을 향한 첫 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또한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것은 자녀들에게 짐을 지우는 말씀이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은 부모를 공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신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람에게 끝까지 순종하고 효도한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도 늙은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초청해 정성껏 모셨습니다. 이방 여인 룻은 남편을 잃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 생애에 놀라운 축복을 부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네 가지 부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 둘째,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영적 부모 셋째, 지식으로 가르쳐주신 스승 넷째,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는 국가의 부모, 국부

이 네 부류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그는 강조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안에서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효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 둘째,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영적 부모 셋째, 지식으로 가르쳐주신 스승 넷째,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는 국가의 부모, 국부



###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한국 및 대만사역: 5/18-5/28
- GMI 사랑의 불꽃 17기: 5/25-5/28
- JAMA 중보기도 Conference: 6/2-6/5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이 네 부류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그는 강조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안에서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효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 미얀마

### 미얀마 J21 Teamwork

#### 인레 호수 마을

지진으로 인해 개척선교지 마을 주민들은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수상마을 학교의 두 건물 중에 한 건물은 무너졌습니다. 그 터에 임시 숙



소를 마련하고 스텝들과 방과후 학교선생님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식량과 생필품 구입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10년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눈물짓는 마을 책임자들을 위로하고 피해를 입은 마을 전체 주민들을 위한 섬김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척선교사역을 진행 중이던 마음이 상한 500여 가정을 품고 기도해주세요.

#### 인레호수 수상선교센터

오늘 안전 진단을 하였는데 건물의 구간별로 가라앉음에 격차가 높아서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10년 넘게 개척선교 사역을 진행해 온 수상 선교센터에서 선교사역은 불가피하게 잠시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해 오던 피난 시설 겸 "주님의 방교회" 구축을 위해 기도 부탁

드립니다. 포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기둥 설치 가능 여부를 상의하고 있습니다. 기도부탁드립니다.

#### 아웅반 선교센터

지진으로 무너졌던 아웅반 선교센터의 재건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피난민 예수마을

고향을 떠나 온 이들은 새로운 터전에서 신앙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 E국

김OO / 양OO선교사

## MISR WATER LILY PROJECT

이곳에 오자마자 1세대 중동파송 한국인 썸을 만났습니다. 너무 귀한 박사님의 애굽에서 40년의 사역 역사를 정리하는 데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스캔과 파일정리,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 GMS와 GMI 협력이 이루어지고, 박사님이 애굽에서 하신 사역들을 한국선교 역사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모든 정리 작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언어학원

우리가 사는 건물 지킴이 가정 (바웬)을 소개합니다. 무 A형제 부부, 그리고 4남매. A형제는 남편과 동갑친구이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 낭무덤덤히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아들(16)은 어느날 학교를 안가고 헬스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조금 놀란 일이라 어떻게 이 가정을 도와줄 수 있을까해서 둘째아들(13)과 셋째딸(8)에게 영어교실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막내딸(3)은 아직 어려서 먼저 형아와 언니부터 시작을 하고, 매주 2번 함께 영어를

가르치고 밥도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사역에 서툴지만, 그 가운데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심어주고 이곳 애굽에서 교육을 잘 못 받는 친구들에게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의 친구 무D자매를 소개합니다. 이제 대학공부 일년 남은 무D자매는 제가 애굽을 처음왔을 때부터 저의 친구가 되어주고 미국에서도 연락하고 지내왔습니다. 함께 섬겨주는 분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은 주님을 못 만났습니다. 이 친구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생각해 보니 필리핀에 크 친구 몇명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해서 줌으로 한국어 교실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1번 줌으로 후보생 3명 정도와 함께 하는데 그 가운데 현지 친구들이 친구가 되어 서로 멀리 있지만 선한 영향력이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기도해주세요.

## GRACE QT 모임

크리스찬 친구 FS부부와 아들(14)을 소개합니다. 애굽에 오자마자 기도모임에서 만났고 저희 부부를 너무 많이 사랑해주고 챙겨주는 사랑스러운 현지친구 가정입니다. 마음을 나누며 서로 더 알아가고 있는 가운데 F형제는 하루 12시간 은행에서 일을 하며 삶의 지쳐있는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4년 뒤에 은퇴를 하고 자기도 신학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싶다고 했지만, F형제에게 어디서 무엇을 하든 지금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침에 그날의 큐티를 나누었고 함께 계속 큐티를 하자고 했습니다. 매일 말씀으로 이 가정이 이 땅에서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새로운 크 친구 K자매를 소개합니다. 영어를 잘하고 한국어도 배우고 있는 K자매도 기도모임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 친구를 섬기는 썸이 이번 달로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저희에게 부탁을 하였는데 마음이 참 뭉클합니다. 앞으로 저희 가정이 이 자매와 교제하며, 가정에서 예배도 하고, 말씀큐티도 하고, 하나님이 K자매를 통해 애굽에서 하실 일들을 고대하며 함께 동역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계속해서 필리핀 친구들과 줌으로 매주하는 큐티모임을 통해 리더들이 세워지고 선교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마사지 교정 운동 치유사역

오랜 저의 현지 무 친구 R자매(37)언니와 여동생 M자매(35). 애굽에 와서 집 알아보는 것도 도와주고 저를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귀한 친구입니다. 여동생 M자매는 2년 전 단기로 왔을 때 영접기도를 하였지만 지금은 성경과 꾸란을 같이 읽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정을 깊이 알수록 모두가 아프고 죽음의 영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사촌오빠가 죽고, R자매는 갑상선이 M자매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손가락이 아직 안 접힙니다. 이 가정을 위해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심고 예수이름으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 모로코

장원 선교사

## 모로코 선교지 방문

2025년 9월에 단기선교로 모로코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그동안 양육된 아프리카 유학생 및 모로코 현지인 제자들을 돌아보고 주님 안에서 서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콩고 선교지 방문

2026년 1월에 콩고를 방문하겠습니다. 모로

코에서 콩고 유학생으로 9년간 양육받은 제자가 콩고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프랑스 파리 송석배 선교사님께서 이 제자를 중심으로 TD 사역을 하고 있는데 2026년 1월에 콩고를 방문하여 이 제자사역을 돌아보고 주님 안에서 서로 새 힘을 얻고 지상명령을 완수하기 위한 성령충만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 기도제목

1. 선교지 방문을 위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건강문제: 올 1월에 담낭을 제거했는데 담낭관 입구에 고름집이 발견되어 한달 전부터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항생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남성모병원으로 전원하여 내주 4월 12일에 복부CT 및 피검사 등 자세한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복부에 모든 병이 다 치료받기를 예수이름으로 소원합니다.



# 국

한OO / 손OO 선교사

## 방과후학교 아이들

방과후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이들은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춤을 좋아하는 민족이기는 하지만 주님이 주신 기쁨 때문에 춤을 추며 노래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방과후학교 아이들과 함께 춤을 추기를 원하십니다. 요즘은 방과후학교에 청소년도 참석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나이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다른 연령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설교와 애니메이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아이들의 믿음은 자라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는 아이들의 주기도문은 믿음의 다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 속에 계십니다. 요즘 방과후학교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 회관이 점점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창문도 달고, 페인트칠도 하고, 선풍기도 달았습니다. 그동안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 의료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마을 주민들이 병에서 건강해지기를 바라던 차에 저희 사역자 수짓이 의료캠프를 제안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의료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수짓과 씨니, 수짓의 여동생 모두가 간호사 출신입니다. 특히 씨니는 시골 주민을 진찰할 수 있는 의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를 하는 마을을 돌며 주민들을 진찰하고 혈액검사를 하고 혈압체크도 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혈액검사를 해주었습니다. 혈액검사를 처음 해보는 사람이 많았고, 긴장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해주었고, 바늘을 꽂을 때 마을 주민들이 “예수 그리



스도”를 따라 외쳤습니다. 사실 검사비용이 많이 드는데 데이터 조사하는 병원과 잘 연결이 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마을 여성들을 위해서 생리교육을 하였는데 생리에 대해서 무지한 여인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생리대와 칫솔, 치약, 비누 등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나중은 더욱더 건강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모든 아픔을,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나 권립자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마을 영혼들을 돌보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마을 영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 MY 어린이집과 가정 교회에서

씨니 사역자는 MY 어린이집을 통해 아이들의 언어 발달과 문해력과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언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신체 발달을 위하여 달리기도 하고, 점프도 하고, 소근육 발달을 위하여 그림도 그리고 가위를 사용하여 만들기도 합니다. 또 아이들의 사회성을 위해 감정표현, 공감능력, 협동능력을 길러 주고 있습니다. 이 교육의 목적은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전도한 사람들과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공부를 하고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고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때론 마을의 반대가 있어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의 교육과 예배를 위해서



좀더 큰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외곽 지역에 고립된 부분이 있어 인력을 확보하고 훈련을 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방과후학교와 교회건축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델리 GIGL 9기 훈련



이번에 델리에서 GIGL 9기 훈련이 있었습니다. 미국, 한국, 인도로부터 스텝들이 모여 훈련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주님 안에서 평안히 안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섬기는 훈련입니다. 저는 저의 사역자와 훈련생들을 데리고 GIGL 9기 훈련에 참석했습니다. 가는 내내 주님의 마음으로 GIGL 9기 훈련생들과 스텝들을 섬길 수 있도록 또 훈련생들과 스텝들도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이번에 훈련생들이 소문을 듣고 역대 최고로 많이 모였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훈련생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고, 차비가 없어서 올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되었고, 또 이번에 이런 사랑을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 보았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이번에 천국을 경험하였다며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저는 세족식을 섬기면서 주님의 섬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좋은 아님이지만 제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주님의 섬김은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번에도 훈련생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주위 사람들의 몸을 녹여 주듯이 GIGL 사랑의 불꽃이 인도에 역ભ렀던 마음, 얼얼불은 마을을 풀어주고 녹여 주었습니다. 시작은 작은 불꽃이었지만 이제는 큰 불이 되어서 인도 모든 영혼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의 불이 주님의 은혜로 인도 전역에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네팔

Heidi Oh 선교사

3월 22일 GG(Grace Gospel) 3기 (은혜복음 전도훈련) 수업을 종료하고 12명의 새로운 GG멤버들이 복음제시 암기시험을 치르고 수



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T Bible Study가 진행 중입니다. 신영자 목사님께서 강사로 헌신해주시고 계시며 네팔 여자 목사님들, GG리더들, 부탄의 리더들이 참가하여 QT Exercise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삶의 습관화를 위하여 이제 한걸음 내디딘 것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미국내 사역으로 은혜한인교회 어린이 전도폭발 Kids EE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팀은 20여명 어린이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킨더 어린이부터 5학년까지 복음으로 무장하고 5월에 수료식이 있습니다. 3월 29일은 교회 정원에서 전도실습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Heaven's Melody Nepal Music Class가 진행 중입니다. 금요일마다 격주로 만나고 있는데 네팔 학생들이 쉬지말고 계속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연령층은 1학년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합니다. 음악기초 이론, 시창, 청음을 배우고 있으며 10월 현지에서 있을 비신자 초청 그레이트 페스티벌을 위하여 복음제시, 바디워십, 스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케냐

황광식 / 원지혜 선교사

식을 줄 모르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만큼이나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을 믿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기온이 조금 내려가야 하는 계절인 것 같은데 아직 본격적으로 우기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교는 세 학기중 한 학기를 마치고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월에는 LA 은혜한인교회의 선교부 아프리카 중동 권역 담당 장로님 부부와 전도사님, 집사님께서 방문하셔서 우리 학교의 전교생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전해주시며 짧지만 귀한 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가장 더울 때 오셔서 땀과 눈물



을 흘리며 이 아프리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음을, 하나님의 꿈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는데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새학기라 일도 많고 바쁜 가운데 한학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학교 3월 세션 중에는 비가 며칠 쏟아져서 물탱크가 다 채워졌습니다. 시니어반은 이제 한 세션만 지나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결단 및 헌신을 하고 신학교에 온 만큼 저마다의 모양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습니다. 특별훈련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물질의 훈련인데 이번에 졸업을 앞둔 학생 두 명이나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통보를 받게 되어 기도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직장에서 배려해 주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였는데 신학교에 와 있는 동안 갑자기 통보를 받은 것

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외의 것들 가정과 자녀들, 사역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나가기로 소망합니다.

저희가 늘 간증하며 감격하는 것은 2012년 케냐에 온 이후로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교회건축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매년 한 군데, 두 군데 나무밑교회나 흙교회의 건축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교회, 어느 성도님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올해는 3월까지만 해도 건축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손길을 통해서 두 교회의 건축이 시작되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물헌금을 통하여 킬리피 저희 본부 가까이 있는 GMI 교회에 우물을 파고 물 탱크를 설치하였습니다. 교회 성도들과 주변 이웃들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1분단상 139-5월호>

- 김대규 장로

성경에서 두려움(히아레, ἱάρα, 헬포보스 φόβος)의 의미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말하는 것으로 존경과 예배의 표현을 내포한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자만치 않고 겸손히 신앙을 지키며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빌2:12)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란 말이 있다. 세속화된 속에 찌들다 보니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동조되어 가는 모습을 꾸짖는 것이라고 본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치 않고 절대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사탄이 타락한 원인도 이것이었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저지른 죄도 하나님을 경외 여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죄 본질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한다면 우리의 삶에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과 경외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신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불신앙을 말하는 것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만이요 만용이며 무지와 게으름으로 죄 가운데로 스스로 삶을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 온전성, 교제성, 성실성으로 빚어진 자이기에 하나님과는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예배)하고 경외(두려움)해야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이를 상실케 되었던 것이다. 이것을 회복해야만 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형상이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한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첫 스텝(first step)이다. 그런데 이를 놓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 이 첫 스텝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인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면 당연히 지극히 높으신 위대하신 지존자 하나님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며 모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께 순종을 하며 경외(두려워)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선 자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거짓되지 말고 게으르지 않고 사랑을 가지고 악은 피하며 선을 행하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성실하게 행하라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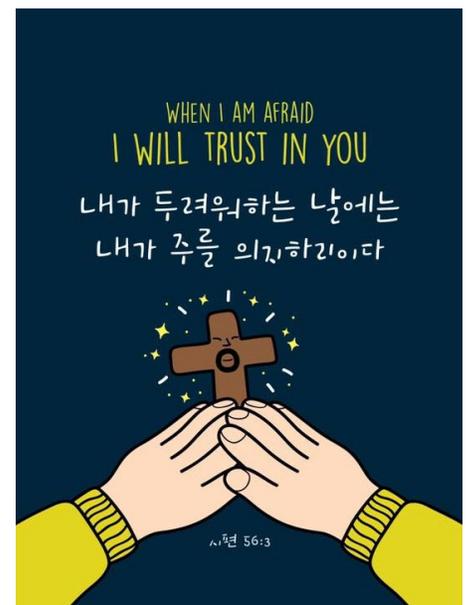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긍정적인 두려움이다. 심판의 주로 나의 생명을 취하실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으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아울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두려움(경외심)을 가지게 하신다.

우리가 긍정적인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10:13)”는 말씀처럼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다. 긍정적인 두려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충성케 되므로 진실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호6:6).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다(벧전1:15).

또한 긍정적인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대상16:29) 영적싸움에서 주의 보살핌으로 승리하기 위한 것이다(고후10:4,5).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잠1:7)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진정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이다. 경외하는 자가 얻는 유익이다.

우리는 세속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 고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 구별되어야 한다. 진정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면 그 면면을 나타내어야 하는 때가 온 것이다. 불의가 극에 달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선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영적 각성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되도록 말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자가 지금 해야 할 몫인 것이다.



## 간증문

# 튀르키예 난민 인카운터 1기

김태형 안수 집사/ G11

먼저 이번 터키 그리스 난민 선교를 안전하고 하나됨 가운데 다녀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이슬람 난민 선교는 터키의 수도 앙카라 근처(성경: 갈라디아지방)의 난민교회인 키리칼레 은혜교회에서 시작하여 사도바울의 2차, 3차 전도여행의 지역들을 성지순례를 하며 국경을 넘어 그리스의 아테네 은혜교회에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1세부터 77세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했던 저희 팀은 키리칼레 은혜교회에서는 엔카운터 및 VBS사역을, 그리스 아테네 은혜교회에서는 주말수양회 및 난민 캠프 노방 전도사역을 하였습니다.

키리칼레 은혜교회는 그리스 신동덕 신미희 선교사님의 멘토십하에 GMU에서 목회학석사 과정을 졸업하시게 된 최초의 이슬람권 신학생인 Harpak과 Ghazal 전도사님께서 세우신 난민교회입니다. 할짝 전도사님께서서는 간식식 수술 합병증으로 호흡곤란이 오셨고, 생사의 기로에서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극적인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신학공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셨고, 남다른 열정과 순수함으로 교회를 지켜오신 두 분에게 본교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선교팀이 찾아가 큰 위로와 힘이 되어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키리칼레 은혜교회의 인카운터는 캔디데이트와 팀멤버 모두에게 살아있는 간증이 넘치는 감동의 장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겪어보는 방언의 은사와 뜨거운 성령체험에 모두가 눈물을 멈추지 못하였고, 많은 분들이 벅찬 마음으로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가질 전도사님의 초대로 히잡을 쓴 두 이슬람 여성분들이 오셨는데 첫날에는 라마단을 지키느라 음식을 일체 거절하며 경계의 눈빛으로 임하셨으나, 둘째날부터 식사도 하시고 성령받기 위한 기



도시간에는 왜 내가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영접질문에 조심스레 yes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키리칼레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무려 1,200명이나 되는 이슬람 난민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40명 정도 되는 키리칼레 성도님들은 이 작은 도시에서도 가장 작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난민들이지만, 이번 인카운터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을 받아 이슬람 난민선교의 큰 리더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저희 팀은 성지순례 길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사도바울의 2차, 3차 선교여행의 현장인 터키-그리스 성지 순례 일정을 마치고 벅찬 기대감으로 아테네 은혜교회의 넓고 확트인 새 성전에서 첫 팀멤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에 모두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에 압도되면서 그곳에 먼저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셨던 주님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집회 때 환한 얼굴로 우리팀을 맞이하는 파리라는 여성도님은 갓 한 살된 갓난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불임이었던 이 자매에게 작년 그리스 인카운터 5기의 기도의 열매로 태어난 기적의 아이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증거였습니다. 작년 인카운터 선교 때 통역으로 오셨던 이란 난민 출신 에흐마드 목사님 가정도 부목사님으로 열심히 섬기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만난 아테네 은혜교회 성도들은 정말 많이 성숙해져 있었고, 평신도 리더들이 말씀 가운데 성장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사님을 도와 정성으로 새가족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에 저희 팀멤버들은 매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EM 청년들과의 연합사역으로 난민 청년모임도 잘 뿌리내려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씨앗을 뿌리고 돌아갔지만, 성령님께서서는 쉬지 않으시고 아테네 은혜교회를 키우시고 돌보시고 계셨구나..”라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앞으로의 그리스 난민선교도 그분께서 다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감과 평안이 차올랐습니다. 더이상 어색함이 아닌, 간절한 심령으로 주말수양회에 임한 성도들은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각종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깊이 체험하였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친히 보살피시는 사랑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는 2022년에 그리스로 첫 정탐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휘어져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난민 캠프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이슬람 영혼들을 만났고, 어려운 현실과 알 수 없는 미래 속에 극도로 마음이 가난해져있는 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난민을 통한 이슬람권 복음전파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이들이 복음화 되어 유럽각지로 흩어져 정착하면 결국은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같이 이슬람화 되어가는 유럽의 부흥을 위한 주역이 될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EU의 난민증이 나와 다른 복지국가로 가서 이슬람 공동체에 흡수되어버리게 될지 모르는 이들에게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황금의 기회이고 또한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난민은 이슬람 선교 마중물”, “두 손 놓고 바라보다간 난민 선교 기회 놓칠 것” 라는 난민 선교에 대한 키워드를 선교 대회 때면 종종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전세계 81억명 인구 중 무슬림의 인구는 약 21억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기독교의 인구는 26억명 정도라고 하며, 2050년에는 높은 무슬림의 출생율로 인해 기독교 인구 수를 초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금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난민들을 전세계로 흩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난민선교라는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슬람 국가들은 자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전파율이 정말 낮을 수 밖에 없습니

다. 또한 우리가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직접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난민이 다른 난민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일(즉, Refugee to Refugee)을 통한 R-R 선교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이슬람 선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GMI 그리스 난민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지인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 양성을 통한 이슬람권 선교사 배출 및 유럽땅의 이슬람권 이주민 교회 개척입니다. 이를 위해 신동덕, 신미희 선교사님께서 그리스 아테네 은혜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며, 아테네 난민 Bible College 사역과, GMU 난민 통신 신학생 양육 및 지원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아테네 은혜교회의 리더들 중에는 타국에 가지 않고 그리스에 남아 헌신한 자들도 있고, 그리스에서 잘 훈련받아서 정착국에 가서도 통신으로 Bible College 수업을 계속 들으며 가정교회의 리더로 준비되어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GMU에 통신으로

목회학 석사를 공부하신 세 분이 각기 터키, 독일, 캐나다에 정착하셔서 자신의 민족을 향한 복음전파 사역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이 중 독일에 정착한 Farzard와 Nagmeh라는 이란출신 난민 부부는 5년 전 터키에서부터 신동덕, 신미희 선교사님의 인도로 GMU에서 통신으로 MDIV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리스로 넘어와서 3년간 양육을 받으셨고 결국 유럽 난민증이 나와서 독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듀셀도프에서 약 2시간 떨어진 마을에 정착을 하여 학위를 마치셨고, 작년 5월에 신동덕 선교사님 내외분과 뒤셀도프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오철희 목사님과 함께 이 가정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란에서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갇히고, 순교할 수도 있는데, Farzad는 독일땅에서 각종 미디어와 케이블 방송을 통해 자유롭게 효과적으로 자국민들과 여러 페르시아어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Farzad 부부를 중심으로 모여진 독일 정착 난민들을 위해 작년 8월 말에는 권혁석 장로님, 김동철 목



사님, 신동덕 선교사님과 함께 듀셀도프를 방문하여 페르시아 이주민 예배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난민을 통한 이슬람권 선교의 문은 지금 활짝 열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수할 때이고 이것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 이슬람 난민 선교를 통해 많은 양질의 난민출신 리더와 교회가 개척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이번 터키 그리스 난민 선교 여정에 함께해주신 참 좋은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 E국 김OO / 양OO 선교사

1.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 귀한 영혼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2. 모든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더 심어지고 선포가 되길
3. 현지 친구들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수 있도록 우리 부부를 사용하길
4. 신학공부와 아랍어공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 🇰🇷 K국 한OO / 손OO 선교사

1. 방과후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고,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2. 교회가 계속해서 개척되고 교회당과 방과후학교가 건축될 수 있도록
3.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이(방과후 학교, 교사 양육, 5월 성령 집회 등) 채워질 수 있도록
4. 외부 한국어 강의실이 열리고 학생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5. GMI 신학교 수업 준비 및 강의와 훈련생들이 주의 종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6. 저의 가족의 영육의 강건함과 신분 보안, 새비자 발급을 위해서



### 🇰🇪 케냐 황광식 / 원지혜 선교사

1.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성령충만하게 하소서!
2. 건축 중인 두 교회 키평가제니 보레싱과야 은혜교회가 안전하고 아름답게 완공되도록
3. 신학교와 특히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4. 유치원 초등 중 등 학교 가 크리스천 명문학교로 성장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5. 주원, 주이, 주엘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며 배움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 선교현황

62개국 318명 (자체파송 78%) (2025년 5월 기준)

## 러시아 및 CIS

**러시아** 쎄 삐페르부르크: 조경호(명숙), 노보시빌스크: 김경순, 볼고그라드: 조익현(임문자), 첼라빈스크: 이정식, 사할린: 천병기(사라), 김성웅(지수), 날치: 주성길(손정순), 블라디보스토크: 서금순, 이르크츠크: 한성우, 타타르스탄: 주선민(손소미아), 하바롭스크: 정소남(미선), 우술리스크: 장석희(약사나), 로스토브: 최성목(혜옥), 블라고베렌스크: 은성식(김경희)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최00 겸임 **아르메니아:** 백승환(올가)  
**키르기즈스탄:** 강형민(숙진), 이정식

## 동북 아시아

**한국:** 정태호(정은주), 고은희, 김영진, 김에스터, 이기쁨(정은주), 최광(나미연), 남경애, 황영수(정경련), 김광문(이용숙)  
**중국:** 김00(송00), 장00(00), 김00(00), 박00(00), 이00(00), 조00(윤00), 정00, 장이(김00), **대만:** 이계석(연희), 김성수(이순희)  
**일본:** 공영환(은자), 이종하(정혜겸), 송좌한(김정희), 박두희(이선희)

## 동남 아시아

**베트남:** 강00, 이00(장00), 강00(한00)  
**태국:** 김인기(박춘희), 임진섭(양윤희), 박경덕(신미선)  
**라오스:** 신00(00), 천00(이00), 유00, 황00(전00), 제00(박00)  
**캄보디아:** 김동규(이승향), 김광석(이영미), 김영대(조정아), 안진호(안지연), 박호순(이영희) 손민지(이범산), 김길현(원경연)  
**필리핀:** 김인수(황소정), 성은식(김해경), 김적용(박영란), 박성용(미경), 유인숙 **미얀마:** 한00(김00), 강00(이00), 광00(엄00), 유00(킨00), 전00(김00), 김00(00)

## 서남 아시아

**인도:** 강00(이00), 한00(손00), 남00(마00), 남00, 정00(전00), 김00(이00) **네팔:** 김00, 이00(00), 박00, 김00(오00), 오000  
**인도네시아:** 기00, 김이(김00), 한지영(김성용), 김태환(주애니)  
**파키스탄:** 정00(이00) **파푸아뉴기니:** 남영미(김운용)  
**방글라데시:** 광00(김00), 강00(현00)

## 아프리카

**케냐:** 황광식(원지혜), 윤형로(미나), 강완식(조영순) **남아공:** 이은원(최정미) **씨에라리온:** 김성림(배현란) **말라위:** 백영심 **모리타니아:** 박준용(한윤경) **탄자니아:** 정부진(조재숙), 여이주(최희정), 송규영(오효숙), 이병철(박미란), 정현우(정슬기), 오종성(박영숙), 조병훈(허선옥) **모로코:** 장원

## 중동

**이스라엘:** 김00(아00), 양00(00), 장00(최00), 김00, 이00(00), 최00(아00), 강00(R00), 김00(조00), 지00, Shin00 **이라크:** 김00, 김00(00),한00(00) **요르단:** 고00(00), 최00(00) **이집트:** 김00, 김00(양00) **레바논:** 장00(서00) **팔레스타인:** 정태훈(정소영) **중동:** 김000(00)

## 중남미

**아르헨티나:** 김영선(박혜순), 유성두(강지애), 스텔라김 **볼리비아:** 정은실(영자) **쿠바, 칠레:** 안희진(구스타보)겸임 **쿠바:** 전재덕(이재순) **파나마:** 김재한(그레이스)겸임 **베네주엘라:** 김도현(강미애), 김재한(그레이스) 겸임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최용준(재숙) 겸임 **브라질:** 한인승(선희), 하선(남성만) **콜롬비아:** 박재현(정은실), 김도현(강미애)겸임 **멕시코:** 이종식, 송두선(양정연), 임한곤(이길선), 이준성(석화), 김봉년(김미란) **페루:** 최갑순(정미희), 박윤수(병순), **파라과이:** 강성현(이경희), 김돈수(미정)

## 유럽

**이태리:** 박상연(병희) **오스트리아:** Markus Obermayr **영국:** 조성문(김애자) **독일:** Vitali Gerner, Musa Galiew, Jonatan Krüger(장아이린), 오철희(이문희), 문성은(그레이스), Chris Schell(임영임) **알바니아:** 오판석(정미라) **프랑스:** 송석배(김은영), 송준호(정희진) **불가리아:** 박정일(인실) **몰도바:** 정석영 **터키:** 김00(00), 공00(박00), 김00(00) 최00(이00), 전00 **우크라이나:** 김교역(주순), **그리스:** 신동덕(신미희), **보스니아:** 신운영

## 북미주

**미국:** 양태철(현정), 강충원, 백원일, 홍종철, 김득원, 박명숙, 구본철(구영숙), 최미영, 황인주(정미), 정화미, 김형주(민지), 권종승, 박태수, 김정한 **캐나다:** 함상훈(명숙)

# 선교부 광고

## 1.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필리핀 개척 전도 및 Grace Camp (5/27-6/2)  
리더: 이창석 집사 (213-598-8845)  
총무: 최혁운 간사 (909-241-0087)
- 가족과 함께하는 필리핀 VBS (6/1-6/8)  
리더: Jackie Yu 전도사 (909-967-4626)  
총무: 최혁운 간사 (909-241-0087)
- Fresno 단기선교 (6/29-7/2)  
T/M: 5/17부터 매주 토 VC119, 5pm  
리더: 류영선 집사  
문의: 최성근 집사 (858-204-2259)
- 쿠바 신학생/청소년 인카운터, VBS (6/29-7/6)  
S/L: 설성훈 목사  
문의: 이병훈 집사 (714-353-1208)

- 케냐 의료선교 (7/6-7/16)  
리더: 김영수 장로 (714-417-2001)  
총무: 한 조셉 안수집사 (714-213-5033)
- 엘살바도르 인카운터 #4 및 VBS (7/1-7/27)  
S/L: 케니 박 목사  
리더: 이재운 집사  
총무: 한 조셉 안수집사 (714-213-5033)
- 필리핀 TD#1 (7/26-8/2)  
S/L: 한기홍 목사  
렉터: 이희경 안수집사  
문의: 안규범 안수집사 (714-328-4820)  
TM: 6/22 새가족국
- 파라과이AFA#12 & 신학교 3기 졸업식 & 치과사역 (7/28-8/7)  
S/L: 안영식 목사  
렉터: 노우중 안수집사  
OT: 5/14(수) 7pm, VC205A

## 2.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 - 11:15 AM  
문의: 의료선교국

## 3.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주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 4.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 AM

## 5.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MISSION  
WWW.FACEBOOK.COM/  
GMIMMISSION

